▣ 작가노트

나의 작업에서 물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치유적인 의미가 강했지만 지금은 물을 상징하는 가상의 동물인 용이라는 직접적인 형상을 통해 조선의 전통 기우제(용은 물을 다스리고 구름을 몰고 온다고 여겨졌기 때문에)나 전통 건축물의 주술적 장식미술(용으로 건물을 장식하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과 연계되어 발전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15세기 중반, 세종 시기에 발명되었던 천문관측기기에서 발견된 용장식들을 모티브로 이번 작업을 풀어나가려 한다. 기본적으로 용은 비와 구름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땅과 하늘 중간을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이유로 그 당시에 밤하늘 별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과학 기기인 간의(1437) 같은 경우, 전체 구조물을 받치는 기둥이 용의 형상을 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Water in my work had a strong meaning of healing based on personal experience, but now it is developed in connection with traditional ritual for rain in Chosun Dynasty (because dragons were believed to control water and bring clouds) or magical decorative art (because of the belief that decorating dragon on buildings can prevent fires in advance). In this exhibition <Wet Metal>, I would like to deal with the motif of dragon decorations found in astronomical observation devices invented during the mid-15th century. Basically, dragons who drove rain and clouds were considered to move freely between the ground and the sky. For this reason, in the case of Kan-Eui(1437), a scientific device that calculates the movement of stars in the night sky at that time, it seems natural in a way that the pillars support the entire structure were shaped like dragons.

하지만 내가 여기서 주목한 점은 과학과 주술적 장식미술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융합 그 자체였다. 과학기기가 가져야할 기능과 실용성 그리고 그 과학기기가 가진 목적성에 부합하는 주술적 장식까지, 현재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과학기기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누가 보면 정말로 작동하는 관측기기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나는 이러한 과학기기들을 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과학을 바라보았는지 상상하게 된다. 예나 지금이나 과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But my main attention is the hybrid of the device, a subtle mixture of science and magical decorative art. The function and practicality of a scientific device, as well as magical decorations that match its purpose of Kan-Eui, are different from the common scientific devices today. It's appearance might be hard for anyone to think that it is a real observation device. From this device, I imagine how people viewed science at that time. This is because science, both in the past and now, reflects the manner toward the world.

이번 전시에서는 박물관과 유적지를 방문하며 수집했던 유물들의 3D 데이터를 이용해서 용조각을 비롯한 다양한 주술적 장식을 3D 프린터로 제작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의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 융합기인 Fusor(2021)를 만들었다. 핵융합이라는 분야는 대부분의 과학이 그렇듯이 양날의 검이라 불린다.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핵융합기를 정성스럽게 두발로 받치고 있는 용들, 냉각기를 더욱 차갑게 유지시켜줄 빙열문 등등 다양한 주술적 요소들이 핵융합로를 장식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관객으로 하여금 우리는 어떤 태도로 과학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In this exhibition, I created <Fusor>, a nuclear fusion called the modern artificial sun, collecting 3D data of relics of magical decorations including dragon sculptures from museums and historical sites. The field of nuclear fusion is called a double-edged sword, as is most science. This would benefit people, otherwise, it causes harm people when used incorrectly. Various magical elements decorate the fusion furnace, such as dragons that carefully support the machine with two feet and the pattern of ice crack(Bing Yeol Mun) that will keep the cooler. Through this, the artist makes the audience think about how we are looking at science today.